

독 일

주요국 예산안

[2026회계연도 독일 연방정부 예산안]

2025.12.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동 보고서는 2025년 7월 독일 연방 재무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 관련 국내 해설서인 Finanzbericht 2026, EU에 매년 제출하는 단년도 일반정부 재정전망·예산계획인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6, 일반정부 중기재정전망을 담은 German Medium Term Fiscal-Structural Plan, 독일 연방정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연구진 |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박정흠 재정제도분석팀장
염보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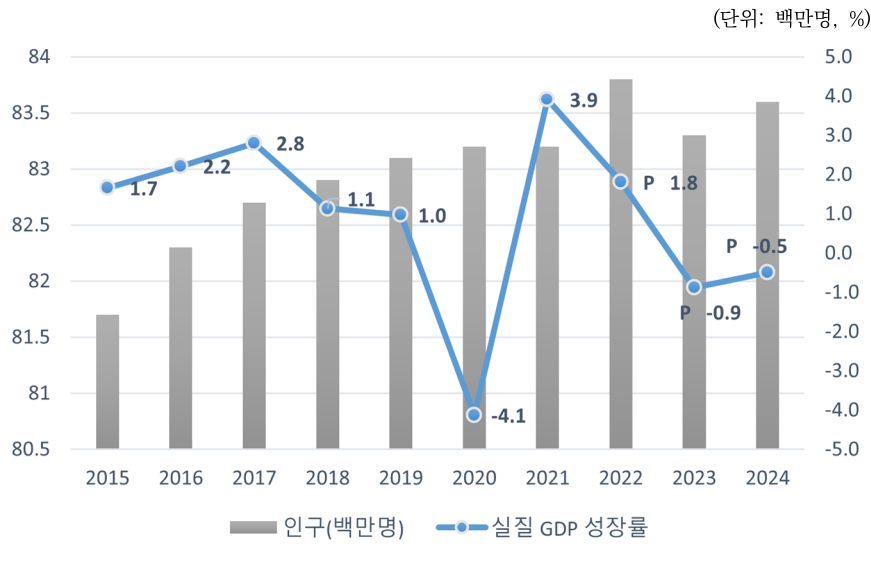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1	경제 및 재정 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4
2	재정 기조 및 정책 방향	8
3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10
가.	수입 전망	10
나.	지출 전망	13
4	지출 계획의 주요 이슈	20
가.	주요 투자 정책	20
나.	주요 특별기금의 재정계획	22

독일 개황¹⁾

- 2026회계연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환율 : 1유로 = 약 1,475.05원(2024년 평균)
- 경제규모 : 경상 GDP 6조 711억 달러(2024년 잠정치)
- 인구 : 8,362.1만명(2024년 기준)
- 실질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자료: OECD.Stat, <http://stats.oecd.org/>, 검색일자: 2025.11.10.

○ 자료:

-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9.
-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6*, 2025.10.
- 독일 연방 재무부, *German Medium Term Fiscal-Structural Plan 2025-2029*, 2025.8.
- 독일 연방 재무부, “Bundesregierung führt Investitionsoffensive fort: Bundeshaushalt 2026 und Finanzplan bis 2029 beschlossen”, 보도자료, 2025.7.30.²⁾
- 독일 연방정부, “Investieren in die Zukunft Deutschlands”, 보도자료, 2025.11.28³⁾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Frühjahrsprojektion 2025,” 2025.4.24.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5,” 2025.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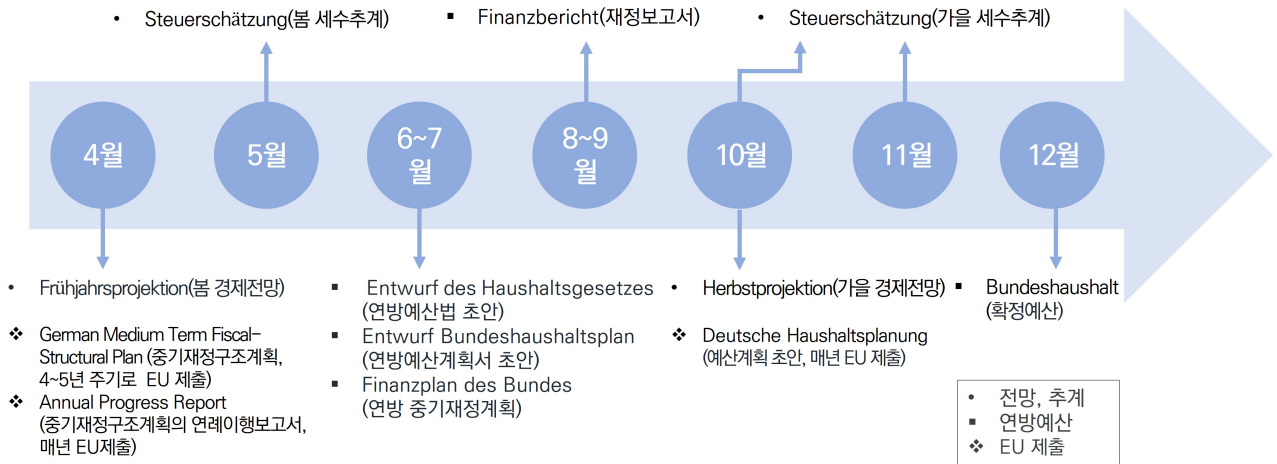
1)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5.11.10.), 경제 규모(Current prices, current PPP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율, 인구, GDP는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자: 2025.11.10.) 기준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07/2025-07-30-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6.html>, 검색일자: 2025.11.12.

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bundeshaushalt-2026-2374030>, 검색일자: 2025.11.29.

자료 해설:

독일 예산안 관련 주요 자료 발표 및 제출 일정:



독일 예산안 관련 주요 자료4):

- Finanzbericht(재정보고서): 연방 재무부에서 연방예산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연방예산법 및 연방예산안 초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국내용 해설서로, 예산안의 배경, 목표, 우선순위, 수입·지출, 신규차입, 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통상 매년 8~9월경 발표
- German Medium Term Fiscal-Structural Plan(중기재정구조계획): 연방정부(연방 재무부 중심)에서 작성하여 2024년 새 EU 경제거버넌스 체계 시행에 따라 회원국이 제출하는 일반정부(마스트리흐트 기준) 수준에서의 재정수지, 채무, 순지출 증가 경로 등을 담은 문서로, 국내 수치를 바탕으로 하여 EU 기준에 맞게 재가공해 계획의 마지막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
- Deutsche Haushaltsplanung(예산계획 초안): EU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연방 재무부에서 작성하고 EU 집행위에 매년 제출하는 단년도 일반정부 기준 재정전망·예산계획 보고서로 중기재정구조계획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반영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제출
- Frühjahrsprojektion(봄 경제전망)·Herbstprojektion(가을 경제전망):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연 2회(통상 4월, 10월) 작성하는 거시전망 보고서로 실질 및 명목 GDP, 물가, 고용, 임금, 내수·수출 등 세수추계와 지출전망의 전제가 되는 기본 수치들을 포함
- Steuerschätzung(세수추계): 연방재무부에서 주관하는 세수추계위원회 작업반(연방 재무부, 5대 경제연구소, 통계청,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등)이 연 2회(통상 5월, 10월말~11월초) 연방정부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기초로 향후 4~5년간의 세수추계를 진행하며, 봄·가을 경제전망과 함께 연방예산법안 및 중기재정계획의 기초 수치로 반영

본 보고서 목차별 활용자료:

- 1절 경제전망: 연방예산계획서 및 연방예산법 초안이 봄 경제전망과 이를 토대로 한 봄 세수추계를 전제로 편성되므로, 봄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가을 경제전망을 참고 자료로 보완
- 1절 재정전망: 연방정부와 일반정부(마스트리흐트 기준)를 각각 재정보고서와 중기재정구조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최신 업데이트된 예산계획 초안의 일반정부 전망을 참고로 추가
- 2, 3, 4절: 연방정부 예산의 재정기조, 정책방향, 수입 및 지출 구조, 투자, 특별기금, 정책 관련 내용은 정부의 공식 해설서인 재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서술

4) 독일 연방 재무부, "Glossar(용어집)",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Service/FAQ_Glossar/Glossar/glossar.html, 검색일자: 2025.12.9. 참조.

요약 SUMMARY

- (경제 전망)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글로벌 수요 부진 등 대외적 제약 요인과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력 공급 제약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2025년(0.0%)까지 성장이 부진하겠으나, 취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2026년 1.0%로 점진적 회복 전망(2025년 봄 경제전망(2025.4.) 기준)
 - 2026년부터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EU 중심의 수출 증가로 점진적 회복을 전망
- (재정 전망) 2025년, 2026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국방비 증가로 인해 증가할 전망
 - (재정수지) 독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5년 -3.25%에서 2026년에는 -4.75%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전망
 - (채무) 독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2025년 65%에서 2026년 69.25%까지 증가할 전망
- (연방 예산의 수입 및 지출) 2026년은 2025년 대비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순차입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
 - (지출) 2026년 연방예산 재정지출은 5,205억유로로 전년 대비 175억유로(3.5%) 증가
 - (조세수입) 2026년 조세수입은 3,838억유로로 전년 대비 30억유로(-0.8%) 감소할 전망
 - (신규차입) 2026년 신규차입은 전년 대비 81억유로(9.9%) 증가한 899억유로이며, 국방·안보, 인프라·기후분야 투자로 인해 계속 증가할 전망
- (정책 방향) 국방·안보와 인프라·기후·디지털 등 미래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회복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출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
 - (투자 확대) 인프라·기후특별기금(SVIK), 기후변화기금(KTF) 등을 활용해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프라·기후·디지털·교육·연구 분야 투자를 추진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대
 - (국방·안보) 안보와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NATO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 이상 기준을 상회하도록 2026년 국방비를 GDP 대비 2.8%로 확대
 -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안보를 위해 큰 차입을 허용하지만 2027년 이후에는 엄격한 지출검토, 구조조정을 통해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준비

1 |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전망⁵⁾

- » (경제성장률) 2025년 봄 경제전망(2025년 4월)에 따르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0.0%(지난 전망 대비 0.3%p 하향조정), 2026년 1.0%로 점차 개선될 전망

 - 2025년 1분기 GDP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수출 부진 및 글로벌 교역 둔화로 연간 성장세는 약화될 전망
 - 2026년부터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EU 중심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실질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소비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는 공공 인프라와 국방분야를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
- » (물가)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2.0%에서 2026년에 1.9%로 소폭 하락할 전망

 - 물가안정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이 소비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 (노동시장) 2025년 독일의 취업자는 0.2%(7만명) 감소하겠으나, 2026년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완만하게(0.1%, 4만명) 증가할 전망

 - 실업률은 2025년 말 정점을 찍은 후 2026년 경제회복 및 공공투자의 효과와 함께 서서히 개선될 전망
- » (리스크) 미국의 보호무역과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인구고령화, 경쟁력 저하, 높은 대외의존도 등 구조적 약점과 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

5) 이하 내용은 독일 연방 재무부의 *Finanzbericht 2026*,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가 발표한 2025년 봄 경제전망을 참고하여 작성.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Binnenwirtschaftliche Stabilisierung, außen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 Frühjahrsprojektion der Bundesregierung", 보도자료, 2025.4.24.,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20250424-fruehjahrsprojektion.html>, 검색일자: 2025.11.12.

〈 표 1 〉 독일의 2025년 봄 경제전망 주요 수치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GDP 성장률	-0.2	0.0	1.0
가계최종소비	0.3	0.2	0.8
정부최종소비	3.5	2.1	1.4
총고정자본형성	-2.7	0.4	3.2
설비	-5.5	0.7	3.8
건설	-3.3	-0.4	2.4
기타	3.9	2.4	4.3
내수	0.3	1.6	1.4
수출 증가율	-1.1	-2.2	1.3
수입 증가율	0.2	1.8	2.1
실업률(연방 고용청 기준)	6.0	6.3	6.2
고용	0.2	-0.2	0.1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0	1.9

출처: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Frühjahrsprojektion 2025", 2025.4.24.,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Downloads/E/eckwerte-fruejahrsprojektion-2025.pdf?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5.11.12.

[참고 1] 독일의 2025년 가을 경제전망

» 202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가 발표한 2025년 가을 경제전망(2025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⁶⁾

- (경제성장률)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에 0.2%에서 2026년 1.3%, 2027년 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봄 경제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되었으며, 향후 2년간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예상
 - 이번 경기 회복은 과거와 달리 수출 호조가 아닌 내수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생산 부분의 회복은 미약하나 공공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제경쟁력, 해외수요 부진, 제조업 회복 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로 광범위한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물가)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에서 2026년 2.0%로 소폭 하락한 후, 2027년 2.2%로 다시 상승할 전망
 -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물가상승은 안정적인 경로에 들어섰으나, 서비스 부분의 물가는 여전히 평균 이상으로 높은 수준
- (노동시장)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2025년 6.3%로 정점을 찍은 후, 2026년

6.2%, 2027년 6.0%로 점차 하락할 전망

〈 표 2 〉 독일의 2025년 가을 경제전망 주요 수치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4	2025	2026	2027
실질GDP 성장률	-0.5	0.2	1.3	1.4
가계최종소비	0.5	0.9	0.8	1.1
정부최종소비	2.6	2.5	2.5	0.6
총고정자본형성	-3.3	-0.5	3.7	4.2
설비	-5.4	0.0	6.5	5.5
건설	-3.4	-2.3	2.0	3.7
기타	0.2	3.6	3.6	3.5
내수	0.2	1.7	1.9	1.5
수출 증가율	-2.1	-0.1	1.2	1.6
수입 증가율	-0.6	3.6	2.6	2.1
실업률(연방 고용청 기준)	6.0	6.3	6.2	6.0
고용	0.1	0.0	0.0	0.1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1	2.0	2.2

출처: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5", 2025.10.8.,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Downloads/E/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5.pdf?__blob=publicationFile&v=7, 검색일자: 2025.10.15.

6)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Herbstprojektion 2025 Belebung der deutschen Wirtschaft erwartet, aber Reformbedarf bleibt", 보도자료, 2025.10.8.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Dossier/herbstprojektion.html>, 검색일자: 2025.10.15.
 _____,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5", 2025.10.8.,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Downloads/E/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5.pdf?__blob=publicationFile&v=7, 검색일자: 2025.10.15.

나 재정전망⁷⁾

» (연방 예산)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국방·안보 확대로 차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으로 이자 지출 역시 증가할 전망

- (재정지출) 2026년 연방 예산 총지출은 5,205억유로로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
 - 재정지출은 2027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주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지출확대에 기인
 - 2026년 연방의 투자 지출은 561억유로이며 전년 대비 66억유로 감소한 수준
 - ◆ 핵심예산에서의 투자지출은 감소하였으나, 특별기금 등을 포함한 총 투자 지출은 1,267억유로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투자항목은 인프라(도로, 철도, 수로), 주택 공급, 교육·보육, 대학 및 과학 등
 - 2026년 연방정부의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2,000만유로 감소한 303억유로로 책정
 - ◆ 이자지출은 2027년 413억유로에서 2028년 553억유로, 2029년 665억유로로 급증할 전망
- (조세수입) 2026년 예상 세수는 3,838억유로 예상되며, 기존 전망치 대비 191억유로 감소
- (신규차입) 2026년 신규차입은 899억유로로 전년 대비 81억유로 증가하였으며, 국방·안보, 국제 지원을 위한 금액을 제외한 신규차입액은 356억유로
 - ◆ 국방 및 안보 관련 지출은 부채제동장치의 예외적용 항목이며, 인프라·기후특별기금을 통한 투자 역시 예외적용 항목으로 간주

〈 표 3 〉 독일의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지출 및 수입

(단위: 억유로, %)

구분	2차 정부안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재정지출	5,030	5,205	5,075	5,464	5,721
전년 대비 증감률(%)	6.1	3.5	-2.5	7.7	4.7
재정수입	5,030	5,205	5,075	5,464	5,721
조세수입	3,868	3,838	4,006	4,123	4,239
신규차입	818	899	881	1,165	1,269
참고: 투자지출	627	561	486	469	468

주: 투자지출은 인프라·기후특별기금(SVIK), 기후변화기금(KTF)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핵심예산(Kernhaushalt) 중에서 직접 편성된 투자지출을 의미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 p.13, Tabelle 3.

7) 이하 내용은 독일 연방 재무부의 *Finanzbericht 2026*, 2025년 중기재정구조계획(German Medium Term Fiscal-Structural Plan)의 전망을 바탕으로 함. 2026년 예산안과 이후 업데이트 된 주요 변화를 반영한 '2026년 독일 예산계획안(Deutsche Haushaltsplanung 2026)'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참고 2))과는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마스트리흐트 기준) 재정)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채무비율 역시 안정성장협약의 기준치(60%)를 상회할 전망

- (일반정부 재정수지) 독일의 재정수지는 국가면책조항(NEC)을 적용하여 지출 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2026년 -3.8%까지 적자폭이 심화된 후 중기적으로는 점차 축소될 전망
 - 국가면책조항 적용으로 대규모 지출 및 유연성이 확보되어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재정건전화 조치와 경제개혁을 통해 중기적으로는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국가면책조항을 적용한 독일의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6년에 2.9%에서 2029년 0.9%까지 점차 개선될 전망
 - 안보 위협 대응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국방비 지출 증가 등으로 구조적 적자 수준이 단기적으로 더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일반정부 채무) 국가면책조항을 적용한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2026년 65.5%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안정성장협약의 기준치인 60%를 계속 상회할 전망
 - 기준치를 초과하는 채무는 정부가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과 국방 지출 증가와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및 에너지 위기 시에 발생한 누적채무에 기인
 - 명목 GDP 성장률이 채무 증가율을 추월하고,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표 4 〉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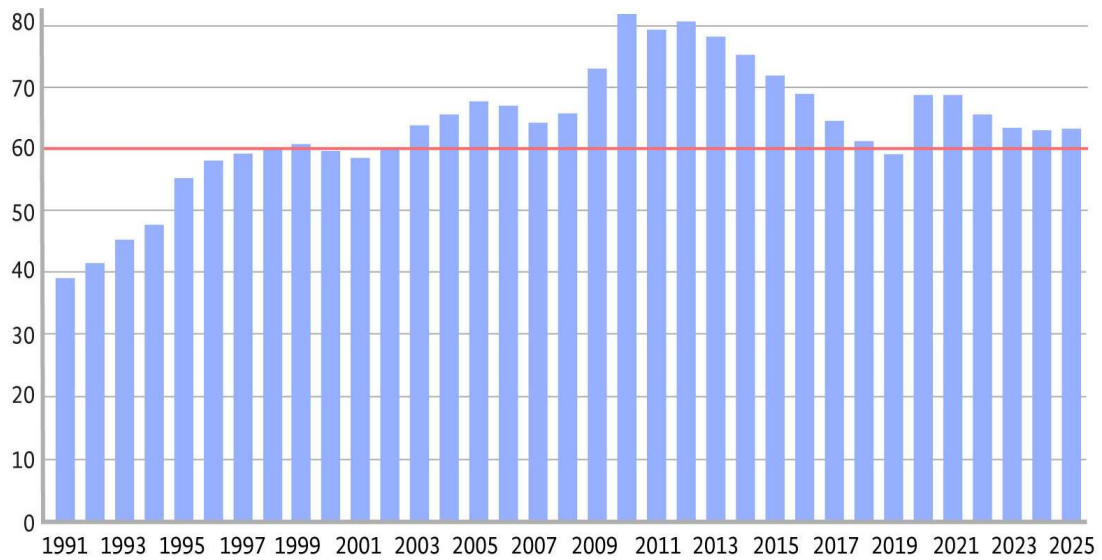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NEC 미적용	-2.5	-2.7	-2.9	-2.8	-2.3	-1.6	-1.0
NEC 적용	-2.5	-2.7	-3.3	-3.8	-3.2	-2.5	-1.8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NEC 미적용	-2.1	-2.0	-1.8	-1.6	-1.3	-0.7	-0.1
NEC 적용	-2.1	-2.0	-2.4	-2.9	-2.4	-1.7	-0.9
일반정부 채무							
NEC 미적용	62.9	62.5	63.8	64.8	64.5	63.8	62.6
NEC 적용	62.9	62.5	63.9	65.5	66.5	66.9	66.5

주: 국가면책조항(National Escape Clause, NEC)은 러-우 전쟁 이후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도입된 유럽연합의 유연성 조항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의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출 및 차입한도 확대를 허용. 국가면책조항 미적용 시 지출증가를 더 엄격하게 제한.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German Medium Term Fiscal-Structural Plan*, 2025, p.76, Table A1; p.91, Table B1.

〈 그림 1 〉 독일의 일반정부 채무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채무

2. 2024년까지의 추이는 독일 연방은행, 2025년 전망은 독일 재무부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Entwicklung der öffentlichen Finanzen" 2025.5.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Themen/Oeffentliche_Finzen/Stabilitaetspolitik/Entwicklung_Oeffentliche_Finzen/entwicklung_oeffentliche_finzen.html 검색일자: 2025.11.13.

[참고 2] '2026년 독일 예산계획안(Deutsche Haushaltsplanung 2026)'의 재정전망⁸⁾

» 2025년 10월 독일 연방 재무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독일 예산계획안(Deutsche Haushaltsplanung 2026)⁹⁾'의 주요 재정전망은 아래와 같음

- (일반정부 재정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4년 -2.7%에서 2026년 -4.75% 까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적자 심화는 최근 인프라, 안보 및 국방 강화를 위한 투자조치에 기인하며, EU 안정성장협약의 기준(GDP 대비 3% 적자 상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 그러나, 유럽안보 위기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국가면책조항에 따른 추가 국방 지출을 허용
-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4년 1.8%에서 정부의 지출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하여 2026년 -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일반정부 채무)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2024년 62.2%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지출 및 투자 강화로 2026년 69.25%를 기록할 전망
 -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2023년 대비 0.1%p 감소

〈 표 5 〉 2026년 독일 예산계획안의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2.7	-3.25	-4.75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1.8	-2.25	-4.0
일반정부 채무	62.2	65.0	69.25

주: 재정수지는 국가면책조항 미적용 수치. 0.25%p를 기준으로 반올림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6*, 2025.10.16., pp.6~7, Tabelle 2, Tabelle 3; p.9, Tabelle 4b

8)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6*, 2025.10.

9) 연방정부의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주요 변화와 계획이 반영됨

2 | 재정 기조 및 정책 방향

- » (정책 여건) 에너지 가격 및 공급망 불안은 완화되고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률, 인구 고령화 심화, 임금상승 압력,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

 - (내부 여건) 2025~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겠으나, 인구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임금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
 - (외부 여건) 주요 교역국의 성장세 둔화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목표 대응 비용의 증가, 글로벌 고금리 환경 등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 » (정책 방향) 대규모 투자 필요성과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재조정하고, 이로 인해 심화된 재정부담에 대비해 우선순위 설정, 경제성장을 통한 세입 기반 개선으로 EU 재정규칙 준수 노력

 - (국방·안보 강화) 국제 안보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국방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NATO 목표치인 GDP 대비 국방비 2% 기준 달성, 군사력 확충, 동맹 기여도 등을 제고
 - 헌법개정으로 국방비, 시민방위 및 주민보호, 정보기관, 정보기술 시스템 보호, 국제법 위반으로 공격받은 국가 지원을 위한 연방지출에서 명목 GDP의 1%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채제동장치의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차입을 허용
 -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26년 2.8%, 2029년 3.6%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관련 지출을 확대
 - 내부 안보 강화를 위한 극단주의와 테러 대응 관련 기관(연방경찰·연방형사청 등)에 약 10억유로 추가 지원
 - (인프라·기후·디지털 투자 확대)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녹색·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교통, 디지털, 기후,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로 경제구조 전환 지원
 - 기본법 제143조h를 신설하여 인프라 개선 및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기후특별기금(SVIK)을 마련하고 12년간 최대 5,000억유로를 투자
 - ◆ 2026년 본예산, 인프라·기후특별기금, 기후변화기금을 합친 투자성 지출은 총 1,267억유로로 전년 대비 약 110억유로 증가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교통(도로, 철도, 수로), 주택 및 도시재생(스마트 친환경 도시), 교육·대학·연구, 기후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자

-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관리)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안보 확대로 신규차입이 증가하겠지만 부채 제동장치 준수를 기본으로 하여 중기적으로는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부채제동장치에서 예외 적용되는 국방 및 안보 지출을 제외한 순차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
 - ◆ 국방 및 안보 분야를 제외한 신규차입 규모는 2025년 513억유로에서 2026년 386억유로, 2027년 364억유로로 축소할 계획
 - 2025년부터 이자비용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과 중기재정계획에서 분야별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부 장관은 2026년 예산안의 목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공정성의 동시달성으로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와 이를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이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¹⁰⁾**

- 교육, 디지털 행정, 교통, 가족정책 등의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와 국가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프라 가속화법(Infrastrukturbeschleunigungsgesetz) 및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
- 2027년부터 발생한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인력 분야에서 절감을 추진하고, 조세 회피, 탈세, 금융범죄 단속 강화를 통해 공공재원을 확보할 계획
- 경제·사회 변화속에서 민간투자 촉진, 관료주의 탈피,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등 개혁을 가속화

10) 독일 연방 재무부, "Lars Klingbeil in der Schlussrunde zum Haushaltsentwurf 2026 im Bundestag", 2025.9.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Reden/2025/2025-09-26-bundestag-schlussrunde-haushalt-2026.html>, 검색일자: 2025.11.17.

3 |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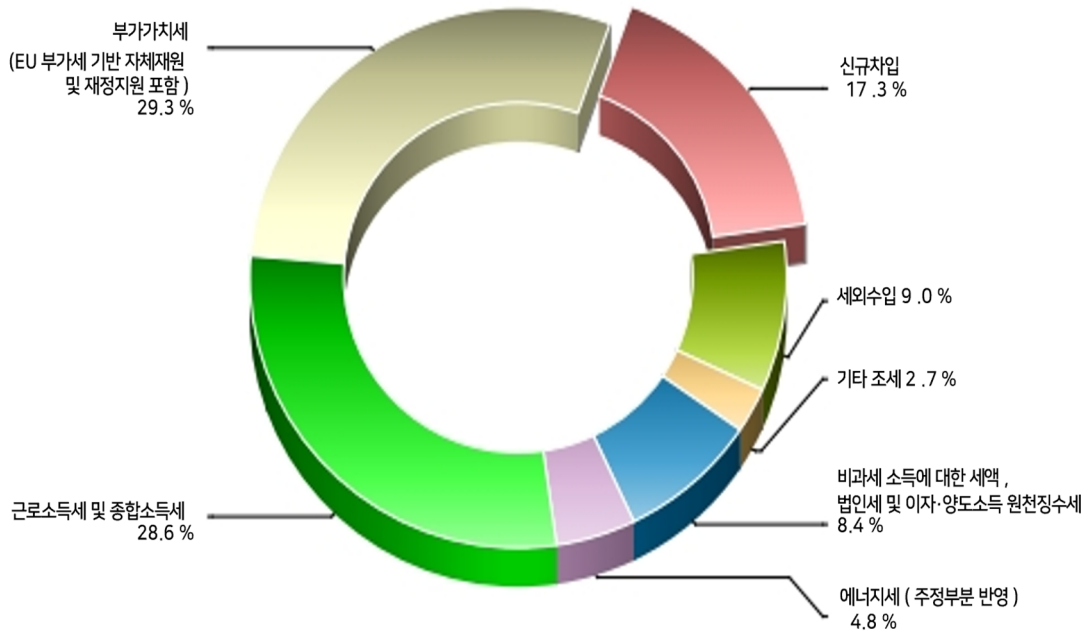
가 수입 전망

» 2026년 연방정부 총수입은 5,205억유로로 전망되며 이 중 조세수입은 73.7%(3,838억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조세수입) 2026년 조세수입은 3,838억유로로 전년 대비 0.8% 감소할 전망
 - 2026년 근로소득세는 1,153억유로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는 1,593억유로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전망
 - 2026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방세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세외수입) 2026년 세외수입은 468억유로 추산되며, EU 경제 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의 보조금 수입, 행정수입(통행료 포함), 기업 및 투자 이익 등으로 재원이 구성
- (신규차입) 2026년 신규차입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899억유로이며, 이는 최근 국가면책 조항에 따른 국방·안보 분야 지출확대에 기인

〈 그림 2 〉 2026년 독일 연방정부 재정수입 구조

(단위: %)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 p.68, Abbildung 10.

〈 표 6 〉 2025~2029년 독일 연방정부 조세수입 및 신규차입 계획

(단위: 억유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근로소득세 (Lohnsteuer)	1,105	1,153	1,221	1,282	1,344
부과과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소득세 (veranlagter Einkommensteuer)	319	333	348	366	380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지 않는 수익과세 (nicht veranlagten Steuern vom Ertrag)	162	163	165	170	176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Bundesanteil an der Abgeltungsteuer auf Zins- und Veräußerungserträge)	103	85	83	86	88
법인세 (Körperschaftsteuer)	179	191	198	203	209
부가가치세 (Steuern vom Umsatz)	1,536	1,593	1,644	1,701	1,753
영업세 이전금액 (Gewerbesteuerumlage)	27	29	29	30	31
연방세 (Bundessteuern)	1,096	1,082	1,104	1,105	1,104
EU기금 (EU-Finanzierung)	-292	-431	-423	-416	-422
지방분권기금 (Regionalisierungsmittel)	-131	-119	-123	-126	-130
보충교부금 (Ergänzungszuweisungen (LFA))	-117	-114	-116	-121	-125
자동차세 손실보전금 (Kompensation Kfz-Steuer)	-90	-90	-90	-90	-90
재정안정보조금 (Konsolidierungshilfen/Sanierungshilfen)	-8	-8	-8	-8	-8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및 현재 세입 추세에 따른 조정분	-22	-33	-32	-62	-74
총 조세수입 (Steuereinnahmen)	3,868	3,838	4,006	4,123	4,239
신규차입 (Nettokreditaufnahme)	818	899	881	1,165	1,269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 p.13 Tabelle 3; pp.73~74 Tabelle 16

[참고 3] 독일의 2025년 세수추계 결과

» 2026년 예산안 조세수입 전망의 기초가 되는 제168차(2025.5.) 세수추계 결과 11)에 따르면 독일의 일반정부 기준 총세입은 2025년 9,797억유로, 2026년 1조 58억유로로 전년 대비 각각 3.4%, 2.7% 증가할 전망

- 연방정부 세입은 2025년 3,890억유로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겠으나, 2026년은 3,871억유로로 전년 대비 0.5% 감소할 전망

»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발표된 제169차 세수추계(2025.10.)¹²⁾에 따르면 독일의 연방정부 기준 총 세입은 2025년 9,907억유로, 2026년 1조 165억유로로 전년 대비 각각 4.5%, 2.6% 증가할 전망

- 제169차 세수추계 결과, 직전 추계(2025.5.) 대비 2026년 전망치는 110억유로, 2025년은 107억유로 상향조정
 - 정부의 투자 및 경제성장 조치의 효과로 성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세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연방정부 세입은 2025년 3,909억유로, 2026년 3,920억유로로 전년 대비 각각 4.2%, 0.3% 증가할 전망

〈 표 7 〉 2025년 제168차 및 제169차 세수추계 결과

(단위: 십억유로, %)

구분		실적	전망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방정부	2025년 5월 추계	374.9	389.0	387.1	403.7	418.6	431.3
	2025년 10월 추계	374.9	390.9	392.0	404.7	414.5	427.6
주정부	2025년 5월 추계	394.8	407.3	415.5	430.9	447.1	462.6
	2025년 10월 추계	394.8	415.1	423.4	436.1	448.9	464.2
지방자치단체	2025년 5월 추계	145.9	148.1	153.9	159.7	165.2	170.5
	2025년 10월 추계	145.9	149.9	156.2	163.0	168.6	174.5
EU ¹⁾	2025년 5월 추계	32.0	35.3	49.3	48.6	48.0	48.6
	2025년 10월 추계	32.0	34.8	44.8	47.1	47.8	49.6
총 세입	2025년 5월 추계	947.7	979.7	1,005.8	1,042.9	1,078.8	1,113.0
	2025년 10월 추계	947.7	990.7	1,016.5	1,051.0	1,079.8	1,115.9

주: 1) 독일에서 징수하나, EU 예산으로 이관되는 세수 항목으로 공동관세, 농업부과금, EU로 귀속되는 부가세 등을 포함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8.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1, 2025.5.1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8-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5.5.16.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9.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1, 2025.10.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9-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6, 검색일자: 2025.10.28.

11)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8. Steuerschätzung” 보도자료, 2025.5.1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05/2025-05-15-ergebnisse-der-168-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5.5.16.
 독일 연방 정부, “Höheres Wirtschaftswachstum notwendig” 2025.5.1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aktuelle-steuerschaetzung-2347744>, 검색일자: 2025.5.16.

12)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9. Steuerschätzung”, 보도자료, 2025.10.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10/2025-10-23-ergebnisse-der-169-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5.10.27.
 독일 연방 정부, “Ergebnisse der 169. Steuerschätzung; Leichtes Steuerplus – Spardruck bleibt” 보도자료, 2025.10.2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ergebnisse-steuerschaetzung-2390700>, 검색일자: 2025.10.28.

나 지출 전망

- » (총지출) 2026년 독일 연방 예산안의 총지출은 5,205억유로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027년 5,075억유로로 감소한 뒤, 2028~2029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

 - 독일 연방 예산안의 총지출은 2028년 5,432억유로, 2029년 5,689억유로로 예상
- » (사회보장) 2026년 예산은 2,431억유로로 전년 대비 71억유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은 46.7%로 소폭 감소했으나 총액은 증가

 - (연금보험) 2026년 연금보험 예산에 1,278억유로를 배정
 - 실질임금 증가와 연금 수준(표준가입자 기준 세전 소득대체율) 48% 유지 연장 등의 정책결정에 따라 연금보험 관련 지출은 2029년 1,541억유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노동) 2026년 노동 분야의 연방지출은 553억유로로 추산
 - 거시경제 상황 개선과 경기 회복에 따라 실업자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난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 실업자 지원, 고령층 및 저숙련자의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예산이 확대
 - ◆ 시민수당(Bürgergeld)¹³⁾ 주거 및 난방비 지원에 410억유로,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직업 관련 독일어 교육에 4억 5천만유로 등을 배정
 - 2029년 예산은 501억유로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민수당의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가족) 2026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예산은 147억유로로 책정
 - 부모수당 75억유로, 아동수당 34억유로, 양육비 선급지원에 13억유로 배정
 - 학령기 이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08년~2024년까지 총 54억유로의 재정을 주정부에 제공했으며, 보육 분야 투자를 위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9억 4천만 유로를 인프라·기후특별기금을 통해 지원
 - 2026/27학년도부터 초등학교의 종일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최대 35억유로를 지원하며, 주의 운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조정법을 개정하여 연방과 주 간 부가가치세 배분을 조정
 - (주택) 2026년 주택·도시개발·건설부 예산으로 76억유로를 배정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목표에 따라 사회주택 건설 지원에 27억유로, 주택수당에 23억유로 등을 책정

13)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실업급여II'(ArbeitslosengeldII)를 대체하여 도입된 기초보장제도 주거비 및 난방비 지원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과 자립을 지원

- » (국방) 2026년 국방부 예산은 전년 대비 204억유로 증가한 827억유로이며, 독일 연방군 특별기금에는 255억유로를 추가 배정

 - 독일은 NATO의 국방비 목표(GDP의 2% 이상) 준수와 연방군 장비 현대화, 우주·항공 역량 강화 등에 따라 지출이 크게 확대

- » (경제 및 에너지) 2026년 경제기후보호부의 예산은 80억유로, 기금 등을 포함한 에너지·수자원·기업·서비스 분야의 총 지출은 267억유로로 전망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2023년~2025년 집중되었던 일시적 조치들이 만료되고, 일부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기금과 인프라·기후특별기금으로 이관되는 등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경제기후보호부의 예산이 축소
 - 항공우주 사업에 21억유로, 지역경제구조개선에 6.4억유로,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에 5.6억유로 등을 배정
 -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2045년까지 기후중립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한 연구 및 실증 프로그램에 중장기적으로 지원

- » (교통 및 인프라) 2026년 교통부 예산은 282억유로이며, 2025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독일 철도(DB) 관련 자본 투입 및 대출¹⁴⁾의 중단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연방도로 및 고속도로 108억유로, 철도 교통 및 인프라에 37억유로, 수로·항만과 관련 행정에 30억유로 등이 배정
 - 이에 더해, 국방과 관련된 교통·인프라에 16억유로, 인프라·기후특별기금에서 213억유로가 별도로 투자되어 2026년 교통·인프라 총 투자규모는 337억유로 수준

- » (교육 및 연구) 조직개편으로 교육과 연구 분야가 서로 다른 부처로 분리되었으며, 2026년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예산은 147억유로, 연구·기술·우주항공부 예산은 213억유로로 편성

 - 하이테크 아젠다 독일(HTAD)¹⁵⁾를 중심으로 연구·기술·우주 정책을 재편하고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테크 등 6대 핵심기술과 우주 관련 분야에 대규모 투자
 - 2026년 우주항공분야에 약 16억유로, 기후 및 지속가능성 연구에 6.5억유로, 생명과학

14) 철도 인프라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독일 철도(DB)의 주주로 출자하여 자기자본을 늘리는 자본 투입과 철도 투자 관련 재원을 저금리, 장기로 빌려주는 방식인 대출을 통해 지원

15) 미래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AI, 양자기술, 로보틱스, 바이오기술 등 6대 핵심 기술분야에 2029년까지 총 180억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혁신 전략

및 보전에 6.3억유로 등을 투입

- 혁신·인재 패키지를 통해 대학 인프라 및 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
 - 연구와 혁신을 위한 협약을 통해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등 주요 과학 관련 기관에 81억유로를 지원하고, 국제 연구자 유치 1억유로, 연구 건물, 대형장비, 고성능컴퓨팅에 3억유로 등을 투자
- 장학금·직업재교육·평생학습 등에 30억유로 이상을 투입해 모든 세대의 학습 및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 연방 학자금 지원 19억유로, 장학재단에 3.4억유로, 마이스터 지원·교육에 2025~2029년 동안 매년 8.7억유로 배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민·여성·청소년을 포괄하는 교육기회 확대와 사회적 통합 추진

» (디지털) 2026년부터 디지털 전담부처인 연방디지털·국가현대화부를 설립하고 경제 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 연방디지털·국가현대화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 및 조직을 통합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하나로 통합
 - 연방디지털·국가현대화부는 2026년부터 자체 개별예산(Einzelplan 24)을 편성받을 예정이지만, 인프라·기후특별기금,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연방 연구·기술·우주항공부 등 여러부처의 디지털 관련 재원으로 계상
- 디지털 인프라 및 행정, 학교의 디지털화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교육, 공공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
 - Digitalpakt 2.0¹⁶⁾ 23억유로, 유럽형 클라우드·데이터 플랫폼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7억유로, 디지털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2.5억유로 등을 투자

» (보건) 2026년 보건부 예산은 전년 대비 8억유로 증가한 201억유로이며, 팬데믹 관련 일시적 지출이 감소했지만,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재정지원이 증가

- 법정 건강보험에 대한 정액보조 145억유로, 건강기금 및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기 대출에 각각 23억유로, 15억유로, 팬데믹 대비 계약 3.4억유로 등을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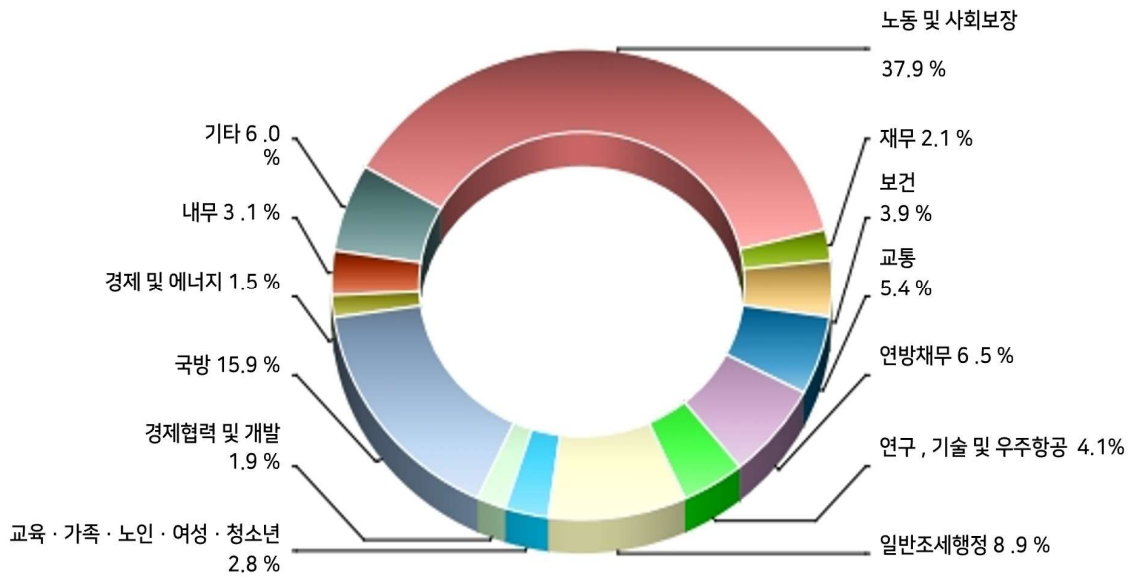
» (환경) 연방환경·자연보호, 원자력안전부의 2026년 예산은 29억유로를 편성하고 핵심 환경·안전 과제를 강화하여 전년 대비 6% 증가

16)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교육 및 학습 방법 개발 촉진을 목표로 6년간 50억유로를 투자하는 프로그램

-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5억유로 규모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부지 선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 및 자연보호 4억유로, 자연보호기금에 1억유로, 기후적응·오염방지에 0.7억유로 등을 배정
- » **(식량·농업·소비자보호) 농업식품향토부는 소비자보호, 기후적응, 지속가능성 예산을 확대해 2026년 총 70억유로를 편성**
 - 식품안정성을 유지하고 기후적응 및 지속가능성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사회정책 42억유로, 식품안전·소비자보호 3억유로, 지속가능성 연구 및 혁신 8억유로 등을 배정
- » **(치안 및 이민) 2026년 연방 내무부 예산은 사상 최고 수준인 160억유로이며, 절반 이상이 내부치안(경찰·정보보안)에 배정**
 - 극단주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는 역량강화를 목표로 연방 경찰에 50억유로, 연방 형사청에 12억유로 등을 책정
 - 사회통합·이민 분야에 22억유로를 책정하고 그 중 통합교육과정에 9.5억유로를 투자하여 난민, 이민자의 독어 교육과 사회 및 노동시장에서의 통합을 중점지원
- » **(국제협력) 2026년 외교부 예산은 61억유로, 개발협력부 예산은 99억유로로 편성하고, 외교, 개발협력,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독일의 국제역할을 강화**
 - 개발협력부의 예산은 2025년 대비 소폭(4억유로) 축소되었으나 엄격한 재정규율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여를 지속하여, 2026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은 국내총생산(GNI) 대비 0.67%수준

〈 그림 3 〉 2026년 독일 예산안의 분야별 지출

(단위: %)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 p.17, Abbildung 1.

〈 표 8 〉 2026년 독일 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연방지출 전망

(단위: 백만유로, %)

구분	목표	예산안	재정계획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일반공공서비스	126,980 (25.2)	149,556 (28.7)	160,134 (31.6)	203,302 (37.4)	219,697 (38.6)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30,959 (6.2)	29,627 (5.7)	30,181 (5.9)	29,182 (5.4)	28,875 (5.1)
사회보장, 가족 및 청소년, 노동시장 정책	235,914 (46.9)	243,077 (46.7)	242,983 (47.9)	253,804 (46.7)	262,849 (46.2)
보건, 환경,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5,249 (1.0)	5,158 (1.0)	5,379 (1.1)	5,185 (1.0)	4,768 (0.8)
주택, 도시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4,437 (0.9)	4,648 (0.9)	4,936 (1.0)	5,923 (1.1)	6,455 (1.1)
식품, 농업, 임업	1,702 (0.3)	1,699 (0.3)	1,454 (0.3)	1,380 (0.3)	1,300 (0.2)
에너지 및 수자원 관리, 무역, 서비스	27,746 (5.5)	26,679 (5.1)	23,558 (4.6)	23,226 (4.3)	22,600 (4.0)
교통 및 통신	31,198 (6.2)	21,373 (4.1)	21,192 (4.2)	21,097 (3.9)	21,160 (3.7)
일반재무 등	38,821 (7.7)	38,658 (7.4)	17,727 (3.5)	136 (0.0)	1,162 (0.2)
재정지출	503,006 (100.0)	520,476 (100.0)	507,544 (100.0)	543,234 (100.0)	568,866 (100.0)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 pp.201~203.

〈 표 9 〉 2026년 독일 예산안의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5년 (목표)	2026년 (예산안)	증감률 (%)
대통령실	58.94	67.39	14.3
연방하원	1,234.15	1,253.11	1.5
연방상원	38.52	40.97	6.3
총리실	3,967.82	4,897.87	23.4
외무부	5,964.80	6,059.13	1.6
내무부	15,171.15	16,011.77	5.5
법무부	1,161.99	1,163.04	0.1
재무부	10,562.76	10,777.90	2.0
경제기후보호부	8,988.78	7,973.20	-11.3
농업식품향토부	6,884.29	6,986.90	1.5
노동사회부	190,304.68	197,407.13	3.7
교통부	38,264.76	28,219.67	-26.3
국방부	62,431.60	82,687.44	32.4
보건부	19,299.28	20,088.79	4.1
환경·자연보호, 원자력안전부	2,691.38	2,853.65	6.0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4,197.28	14,718.90	3.7
헌법재판소	44.83	46.42	3.6
회계감사원	195.97	202.24	3.2
정보보호 및 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47.40	52.15	10.0
독립통제위원회	11.65	14.60	25.4
경제협력개발부	10,276.11	9,944.72	-3.2
주택도시개발건설부	7,369.90	7,595.55	3.1
연구·기술·우주항공부	22,377.68	21,259.00	-5.0
연방채무	34,171.97	34,080.71	-0.3
일반재무관리	47,288.74	46,073.33	-2.6
재정지출	503,006.41	520,475.59	3.5

주: 2025년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부처명 변화 반영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 pp.89~90.

4 | 지출 계획의 주요 이슈

가 주요 투자 정책

» (총 투자지출) 2026년 연방예산의 투자지출은 561억유로이며, 인프라·기후특별기금과 기후변화기금을 포함한 전체 투자지출은 1,267억유로

-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 내 투자지출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25년 예산에 포함된 일회성 대출, 자본출자 등 금융자산 투자의 종료에 기인
 - 2026년 금융자산투자는 84억유로로 2025년(173억유로) 대비 감소
- 투자지출의 증가는 중기적으로 지속되어 2027년~2029년 기금을 포함한 전체 투자는 1,174~1,195억유로(연방예산 투자지출 465~486억유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2026년 연방의 투자성 재정지원은 462억유로로 2025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비중은 늘었으나 기타부문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
 - 공공부문은 168억유로, 기타부문(기업, 민간, 해외 등)은 294억유로로 계획

〈 표 10 〉 독일 연방정부 투자지출(2024~2029)

(단위: 억유로)

구분	실적	목표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투자지출	567	627	561	486	469	465
자본투자	75	97	99	100	99	102
재정지원	492	530	462	386	369	363
공공부문 재정지원	77	147	168	105	103	110
기타부문 재정지원	415	383	294	282	266	253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 pp.60~61, Tabelle 12.

» (주요 분야별 투자지출) 2026년 연방정부의 투자지출에서 교통 인프라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별기금을 통한 투자 확대로 노후 인프라 보수와 저탄소 전환 투자를 더욱 강화

- (교통·인프라) 고속도로·철도·수로, 지자체 교통개선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노후 인프라 보수와 함께 네트워크 현대화를 가속화 할 계획

- 연방 철도에 220억유로를 투자하는 등 철도 중심 투자가 확대
- (안보·국방) 2026년 안보와 국방분야 투자는 각각 13억유로, 25억유로이며, 2025년 대비 3억유로, 8억유로 증가
- (주택 및 도시개발) 2026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은 40억유로이며, 도시재생, 스포츠시설 등 도시개발 투자에는 약 5.7억유로가 배정
- (교육·연구·우주) 2026년에 유럽 우주국(ESA) 분담금으로 9.8억유로, 대학 연구시설·대형장비·고성능컴퓨팅에 3억유로, 우수대학 육성전략 5억유로 등을 투자하고, 기금을 통한 투자를 확대
- (환경) 2026년 방사성 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리와 관련 프로젝트에는 총 15억유로가 할당되며, 대부분 핵폐기물처분기금(KENFO)을 통해 부담
 - *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환경보호 관련 공공투자는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므로 연방정부 지출은 전체 환경보호 분야 지출 중 일부에 해당
- (지역경제발전) 2026년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GRW))의 일환으로 6.4억유로 배정되었으며, 2029년까지 약 7억유로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계획
- (기후·에너지) 기후변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지출은 357억유로, 기후·인프라 특별기금에서 매년 100억유로를 추가 투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BEG), 수소·친환경 모빌리티 등 탈탄소화 관련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강화
 - 기후친화 모빌리티 35억유로, 송전망 사용료 보조금 65억유로, 수소경제 확산 30억유로, 국제 기후보호 8억유로 등 책정

나 주요 특별기금의 재정계획

1) 2026~2029 재정계획 기간 내 특별기금 관련 이슈

» 재정계획 기간 동안 일부 특별기금의 폐지 추진 및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설립된 기금의 법적 권리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구조전환 및 재편

- 2007년에 설립된 아동 보육시설 확대기금은 2024년 6월 최종 자금 인출이 되었으며, 규정에 따라 2026년 말 폐지될 예정
 - 아동 보육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프라·기후특별기금을 통해 배정될 예정
- 전일제교육지원법(Ganztagsförderungsgesetz)은 2021년도에 설립되어 초등학교 중일 돌봄에 대한 법적권리를 2026/27학년도부터 의무시행하도록 설계·도입되었으며, 2029년 또는 203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집행
- 지방자치투자촉진기금은 2025년 3월 기준 98.2%의 지원금이 인출되었으며, 2027년 폐지될 예정

2) 기후변화기금(KTF)

» 2026년 기후변화기금에 계획된 프로그램 지출은 331억유로이며, 그 중 투자성 지출은 217억유로로 추산

- (개요) 기후변화기금은 기후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프로그램 지출을 지원하는 특별기금
- (계획) 기후변화기금의 지출 규모는 2026~2029년 동안 총 1,443억유로가 될 전망
 - (수입) 2026년 기금 총 수입은 약 331억유로이며, 국내 탄소가격 수입 167억유로, 인프라·기후특별기금으로부터 100억유로, EU 배출권거래(ETS) 수입 43억유로 등으로 구성
 - (지출) 2026년 프로그램 총 지출은 357억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나, 글로벌 감액(Globale Minderausgabe)¹⁷⁾ 26억유로를 제외하면 최종 집행액 상한은 331억유로
 - ◆ 2026년에는 건물 부문의 기후 보호(건물 개조, 신축, 열 네트워크 전환)에 126억유로, 에너지비용 경감(전력망 요금 보조) 98억유로, 친환경 모빌리티 35억유로, 수소경제 확대에 30억유로 등이 배정
- (특이사항) 기후변화기금은 2025년부터 인프라·기후특별기금에서 매년 100억유로를 재원으로 이전받아, 기후 및 저탄소 산업 전환 투자를 확대

17) 연중 지연, 축소,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사전에 예산 전체에서 일괄 차감해 두는 조정 항목

〈 표 11 〉 2025~2029 독일 기후변화기금의 재정계획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수입	36.7	33.1	35.9	37.6	37.7
ETS 배출권 거래 관련 수입	5.3	4.3	4.6	7.5	9.5
국내 탄소 가격 책정 관련 수입	15.4	16.7	21.3	20.2	18.2
인프라·기후특별기금(SVIK)	10.0	10.0	10.0	10.0	10.0
적립금 인출	6.0	2.1	0.0	0.0	0.0
지출	36.7	33.1	35.9	37.6	37.7
프로그램 지출	36.6	35.7	36.7	39.0	39.5
적립금 배정	2.1	0.0	0.0	0.0	0.0
통합 과소지출(글로벌 감액)	-2.0	-2.6	-0.8	-1.4	-1.8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 pp.51~2 Tabelle 10.

〈 표 12 〉 2025년 독일 기후변화기금의 주요 프로그램 지출 계획

(단위: 십억유로)

주요 정책	규모
건물 부문(신축 및 개축, 열 네트워크 전환)	12.6
에너지 비용 경감	9.8
기후친화적 모빌리티	3.5
수소경제 활성화	3.0
산업 전환	2.7
기후친화적 에너지 공급	1.8
자연보존 및 기후보호 조치	1.0
국제 기후보호	0.8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6*, 2025 pp.51~2 Tabelle 10.

3) 인프라·기후특별기금(SVIK)

- (개요)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와 기후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설립된 특별기금으로 기본법 제143조h에 근거하여 12년간 최대 5,000억유로 규모로 설립
 - 연방 인프라 추가 투자에 3,000억유로, 주 및 지자체 관할 인프라 투자에 1,000억유로, 2045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추가 투자를 위해 1,000억유로를 배정하고 기후변화기금으로 출연하여 사용

- (계획) 2025년에는 총 370억유로(연방 189억유로)의 투자 지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 총 지출 계획은 590억유로로 이 중 연방투자에 405억유로를 배정
 - 연방투자는 교통, 병원, 에너지, 교육 및 보육, 연구개발, 디지털화, 주택건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며, 2029년까지 연 400억유로 규모를 유지할 계획
 - 기후변화기금에 연간 100억유로를 배정하여 이관하고, 나머지는 주 및 지자체 관할 인프라에 투자

4) 연방군 특별기금

-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변화된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 예산 외에 최대 1,000억유로의 연방군 특별기금을 2022년에 설립하였음
 - 기금은 국방 예산을 지원하며 특히 복잡한 다년도 군비 프로젝트의 연방군 장비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활용
 - 연방군 특별기금의 자원은 대출 승인을 통해 조성되어 추후 상환 의무가 발생
- (계획) 2026년 연방군 특별기금은 255억유로의 지출을 계획
 - 군 장비 투자, 관련 연구, 탄약 구입, 인프라 및 정보 기술 분야의 프로젝트, 핵심 기술 보호 및 접근 보장, 군수 지원 등에 지출 예정
 - 연방군 특별기금은 2027년 말에 전액 소진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예산에서 연간 32억유로씩 충당금을 마련해 대출을 상환할 계획

5) 복구지원기금

- (개요) 복구지원기금은 2013년 7월에 독일 연방정부가 홍수로 인해 발생한 인프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제정한 복구지원법(Aufbauhilfegesetz)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80억유로의 기금을 조성
 - 연방정부가 기금을 전액 선지급하고 주정부는 그 중 일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65억유로는 주와 지방 정부의 인프라, 15억유로는 연방 인프라 복구에 사용
 - 2021년 폭우와 홍수로 인해 법률이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2023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예비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산안에서 시행된 것처럼 연방 예산에서 필요에 따라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사용
- (계획) 2026년 연방예산으로부터 기금으로 25억유로를 투입할 계획